

# 기사체 문장에 흠뻑 빠진 수습기자 시절

책으로 쓰는 자서전 — 8

김병익 | 문학평론가

“기자생활한 지 일년이 지났을 무렵 《사상계》로부터 원고청탁을 받았다.

순간, 나는 감격했다. 읽고 배우기만 해야 할 뿐 감히 거기에 글을 쓸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최고의 권위지에 글을 쓰게 되다니. 내 감동이 너무 컸기에 이 잡지의 격에 어울릴 글을 써야 한다는 데 큰 부담을 지게 됐고 그 짐에 나는 그만 주눅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그 글을 쓸 때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다시는 그 글을 보지 않았다.”

1965년 2월 하순에 나는 병장으로 만기제대했고 그 발령 며칠 전에 동아일보사 견습 7기로 입사했다. 제대를 몇 달 앞두고 나는 구체적으로 취업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정치학과 졸업생으로 입사원서를 낼 수 있는 곳은 언론기관뿐이었다. 전방부대에 근무하면서 따로 취직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에 말 그대로 ‘평소 실력’으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다. 어렵든 동아일보의 입사시험 1차에 합격했고 지금도 끔찍하게 기억되는 2차 실기시험을 치르고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기다린 끝에 11명의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대학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을 느꼈다. 자, 이제 나도 사회인이 되는구나! 하는 감회 속에서 “세상 밖으로!”라는 모험의 용기를 추스려야 했다.

## 상처뿐인 영광

신문사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나는 신문이며 언론 등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다. 시험 때야 처음으로 사육을 유심히 보게 된 동아일보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사고 자부심이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처음 알았고 이때야 신문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비로소 짐작할 수 있었다. 지방에서

주재 기자들의 못된 행태만 보신 부모님은 내가 신문사 기자가 됐다는 것에 마땅치 않은 표정이셨고 은근히 자기처럼 은행원이 되기를 바란 형은 이것이 내가 갈 길인가 보다고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러나 나는 자장면 30그릇 값밖에 되지 않는 견습기자의 초봉에도 이 직장에 만족했고 또 열심이었으며 나의 첫 직업에 매혹돼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신문과 언론, 그리고 이 방면의 학문이 중세의 신학이나 근대의 자연철학처럼 앞날의 중심 분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글을 쓰는 사람’ 곧 ‘기자’로서 내 능력은 아주 한심한 정도였던 것 같다. 문학소년이었고 대학 시절에는 시인의 친구였으며 대학 신문에도 한두번 투고해서 글이 실린 적이 있었음에도 나의 글쓰기는 아직 미숙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다는 것을 사회부 견습으로 처음 내리다지 기사를 쓸 때 고통스럽게 실감해야 했다. 그 즈음 ‘피라미드 계’라는 것이 생겨 그 피해자가 선배 기자들의 전화 송고나 받고 있는 ‘똥마니’ 기자인 내게 호소해왔다. 자초지종을 듣고 데스크에게 보고했더니 해설기사로 써보라는 것이었다. 견습에게는 드물게 찾아오는 호기다 싶어 나

는 밤늦게 끄꿇대며 원고지 10장 정도로 기사를 써서 다음날 제출했다. 한데, 데스크는 나를 옆에 다 세워놓고 묻고 따지고 확인해가며 지우고 고치고 덧붙이며 짜증스레 내 원고를 난자(亂刺)하는 것이었다. 그 10여분이 한 시간 넘게 벌받는 기분이 돼 얼굴이 훗훗해지고 귀가 멍해지고 속이 타는 것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석간 신문에 내 이름이 박힌 기명 기사가 게재됐다.

견습 동기들은 같은 견습 가운데 가장 먼저 게재된 내 내리다지 기사를 보고 부러워하며 축하해줬지만 정작 내 속은 ‘죽을 맛’이었다. 기사 작성자로 내 이름이 박혀 있지만 분명 내 기사가 아니었고 그 기사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뉘달달한 일은 도대체 내가 처음 당해보는 곤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견습기자로서는 기념적이어야 할 그 기사를 나는 다시 읽어보지도, 스크랩하지도 않았다. 데스크가 수정한 그 기사가 당초 내가 쓴 것보다 더 좋았을까 하는 반말까지 솟았지만, 그럼에도 이 경험은 내게 두 가지 깨우침을 줬다. 우선 글쓰기란 그것이 하잘것없는 기사라 하더라도 힘든 고통 속에서 일궈진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글은 모름지기 내 생각이나 느낌의 자의적인 혹은 주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남에게 읽혀 소통해야 하는 관계적 형태의 것이라는 점이였다.

## “글쓰기는 고통이다”

글쓰기에 대한 내 자의식은 이때부터 형성됐을 것이다. 김 현은 글 쓸 때가 가장 즐겁다고 내게 고백했지만, 나 자신은 고통 없이 글쓰기를 마친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글쓰기는 곧 고통이라고 단언하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야사 하이페스의 바이올린 연주 장면을 연상시켰다. 대학시절 기록 영화로 보게 된 하이페스는 현을 켜는 그의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됐을 때 한없는 고통의 표정, 움직임은 멜로디 하나하나마다 눈이며 입술, 안면근육이 섬세하게 떨리고 변하는 가운데 슬

품과 고뇌를 드러내는 듯했다. 그 창조적인 예술가들과 나와는 격과 조가 다르겠지만 어떻게든 무언가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슬픔이며 고뇌를 통해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쥐어짜는 고통이야말로 예술가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생각을 나는 지울 수 없었다. 조세희씨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쓸 때 겨우 두 문장을 만드느라 밤새 너댓 잔의 커피와 수십 개비의 담배를 소진하는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경험에서였다.

신문 기사란 가장 객관적인 글쓰기였다. 그것은 쓰는 사람의 개인적 자족감을 거부하며 독자에게 명쾌하게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 글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만 알고 느끼는 주관적인 문장이나 구절은 철저히 배제해야 할 것이고 사태를 명료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서술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니까 문체는 객관적이면서 최대한으로 경제적이어야 했고 그래서 당연히 가장 엄격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같은 주격조사라 하더라도 ‘는’을 써야 할지 ‘가’라고 써야 할지 선택해 어휘와 절, 문장과 문단 등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적인 절차를 밟아 명료한 소통회로를 구성해 읽는이에게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게다가 신문기사란 지면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부분 절단당할 것이어서 어느 부분이 잘려나가도 문맥에 하자가 없을 정도로 유연해야 했다. 이렇게 기사의 특성을 알아가면서 나는 점차 기사 문체의 매력에 젖어들었고 이후의 짧고 긴 신문 기사 쓰기에서 이 객관성과 경제성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됐다.

### 《사상계》로부터 원고청탁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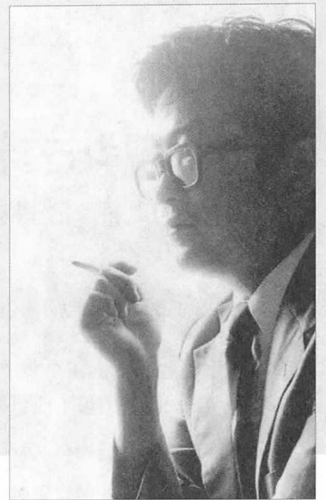
기자 생활의 초기에 내 기사는 이렇게 엄격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입사 1년 후 문화부에 배속돼 사회부 기사와 스타일이 다른 문화면 기사를 쓰면서 나는 내 기사가 너무 뻣뻣하고 재미없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문화부장이었던 소설가 최일남 선생을 다방으로 청해 내 기사 스타일에 대한 솔직한 소감을 부탁드렸다. 그분도 내 스스로 느끼는 것과 같은 소감이었다. 나는 나의 박재(薄才)에 한탄했다. 그런데 그 어느 봄이었을 것이다. 미국으로 이주한 독일 신학자 파울 틸리히의 부음이 들어왔다. 대학 시절 그의 글을 읽어본 적도 있지만 군대 시절 《타임》에서 그에 관한 커버 스토리를 관심 깊게 본 적이 있어 내가 해설 기사를 쓰겠다고 데스크에게 자청했다. 물론 조사부 자료를 놓고 쓰는 것이었지만 글이 줄줄 흘러나오고 적절한 표현법들이 저절로 구사되고 있음을 기사를 작성하는 중에도 느낄 수 있었다. 신문이 나오고 그 기사를 본 선배 문화부 기자인 안병섭씨가 잘 썼다고 칭찬해주기도 했지만 우선 나 스스로 자족감이 드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의 기사는 유창해졌다. 문화면의 다양한 주제에 따라 긴 학술 기사든

짧은 인물 스케치든 어떤 유의 기사든 능숙하게 쓸 수 있었고 그 길이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는 것을 내 자신이 느끼고 있었다. 나는 많은 기사를 썼고 여러 형태의 기사를 열심히 썼다. 비로소 글쓰기의 재미도 느끼기 시작했고 글을 만드는 일의 즐거움도 알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났을 때였다. 《사상계》 편집장인 시인 유경환씨가 원고청탁을 해왔다. 나는 감격했다. 우리에게 어떤 《사상계》였

던가! 읽고 배우기만 해야 할 뿐 감히 거기에 글을 쓸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최고의 권위지에 글을 쓰게 되다니. 내 감동이 너무 컸기에 이 잡지의 격에 어울릴 글을 써야 한다는 데 큰 부담을 지게 됐고 그 짐에 나는 그만 주눅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2백자 원고지 40장을 쓰는데 파지가 그 서너 배가 넘었을 것이고 거기에 걸린 시간만도 두어 주는 되지 싶다. 문제는 내가 들인 공이 아니었다. 내가 쓰며 느끼기에도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굳어 있었다. 그 제목이 〈세대 연대론〉으로 한 문학 사전에는 나의 평론 데뷔작으로 적혀 있는데, 그 글을 쓸 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고 원고를 넘기고서 드는 씩씩함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다시는 그 글을 보지 않았다. 《세대》의 편집장으로 있던 이중환이 그 글을 보고 “굉장히 얼어 있더군” 하며 그때의 내 속을 간파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잡지용의 긴 글에 도전함으로써 굳어 있는 내 스타일을 이겨내기로 했다.

마침 이중환이 《세대》지에 우리 학계의 문제점들을 리뷰하는 연재의 글을 청탁해왔다. 나는 이 호기를 이용해 긴 글 쓰기를 훈련할 수 있었다. 대학 도서관 실패를 취제한 첫 글은 80매를 메꾸는데도 꽤 힘이 들었지만 특수 대학원, 연구비 등으로 계속 써나가면서 긴 글도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후의 《지성과 반지성》에는 그 가운데 〈교수, 연구, 연구비〉 한편만 수록했지만 이제 서야 나는 비로소 잡지용의 긴 글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어쩌랴 나의 빈재(貧才)를! 이즈음부터 신문 기사용의 짧은 글이 잘 되지 않고 주문보다 길게 늘어지며 느슨해지고 마는 것이었다.●



신문기사 문장에 익숙해질 무렵 《사상계》로부터 원고청탁이 왔다. 하지만 잡지의 권위에 짓눌린 나는 잔뜩 힘이 들어간 원고를 쓰고 말았다. 그때 지우 이중환이 《세대》지에 연재글을 써보라고 권유해 잡지용 긴 글쓰기에 도전해 보기도 했다. 사진은 《지성과 반지성》을 출간하던 1974년경 9월 필자의 모습.